

미국 서부의 이와쿠라 사절(岩倉使節)

로버트 캠벨

① 이와쿠라 사절의 개요

1869년 5월(음력)이라는 시기는 일본의 경우,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을 거쳐 신정부가 통치 기반을 안정시키고 근대 국가로의 모색을 본격화시킨 기간에 해당한다. 메이지(明治)로의 연호 개정(1868년 9월)과 실질적인 천도를 이미 달성한 후, 제번체제의 종언과 국가 통일을 내외에 알리는 판적봉환(版籍奉還; 1869년 6월)의 실시를 눈 앞에 두고 있었으며, 새로운 정치체제를 정하는 폐번치현(廢藩置縣; 1871년 7월)을 2년 앞두고 있는 노정 위에 서 있었다. 미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시기는 국가 통일을 결코 싸워 미증유의 살육을 벌인 남북전쟁의 종언(1865년 4월, 단 여기서는 양력)으로부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았음에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경제부흥을 이루어 「금도금시대」라 불리는 1870년대의 기반을 정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기로에 서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신생」 개국 일본을 포함한 당시 세계정세로 볼 때, 미국에 있어 가장 획기적인 사건으로는 그 달 서남 지방 유타준(準)주 프로몬트리 포인트라는 장소에 「태평양 철도」 선로에 마지막 침목(枕木)이 깔리고, 신대륙을 횡단하는 철도가 처음으로 완성, 개통된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행객이 증기선과 기관차를 이용하여 세계(북반구)일주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골드러쉬(1848년 개시)이후, 급속히 발전한 미국 서부로서는 대서양을 사이에 둔 유럽, 그리고 미국 동부와 연결됨에 따라 아시아 제국과 무역 및 인물 교류가 활성화 되어 지금의 환태평양 문화·경제권의 첫걸음을 정비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다시 일본을 되돌아보면, 1869년 5월에는 미국인 선교사이자 당시 개성학교 교사이기도 한 베르벡(Guido Verbeck)이라는 인물이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에게 일본정부가 구미로 사절단을 파견해야 할 당위성을 서술하고, 아울러 그 목적과 방법을 상술한 노트를 적어 보내고 있다. 당시에는 시기상조라고 목살되었으나 폐번치현을 거쳐 통일국가가 성립된 1871년에 이르러 파견은 재차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어,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를 대사로 임명, 조약개정에 관한 교섭을 주목적으로 파견이 단행되기에 이른다. 이 때, 이와쿠라는 베르벡을 불러 이전 제출한 노트의 복원과 재제출을 명하였고, 단기간 일본정부가 기획한 대규모 파견의 중요한 지침으로 이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노트를 살펴보면, 이와쿠라 사절단은 조약교섭 뿐만 아니라 일정수행 중 근대 서양문명을 적극적으로 시찰·학습할 것이 강조되어져 있으며 그 성과로 귀국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널리 자국민에게 문명의 단계를 알리는 계몽으로써 간행하는 것이 필수 조건으로 거론되어져 있다.

사절단의 모든 고관, 특히 서기는 스스로 견문한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하여 각 부문에 관하여 가능한 많은 정보를 필사, 혹은 인쇄물의 형태로 입수할 것. 그리하면 그들이 귀국 후, 정부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때, 사절단의 모든 성과를 국민의 일반적인 이익과 계발을 위해 편집, 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베르벡 『브리프 스케치』 원본은 영문).

대사수행원으로 사절단에 참가한 구메 구니타케(久米邦武)가 1878년 간행한 『베이오카이란짓키(米欧回覽実記)』(5권, 다조칸(太政官)기록괘간행(記録掛刊行)는 위에서 언급한 바로 그 인쇄물에 해당하며 근대 초기 일본의 국제적인 위상을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서적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반적인 이익과 계발을 위해 편집」된 계몽서이기도 한 이상, 그 표현과 표상이 분석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러한 맥락에서 『베이오카이란짓키』의 문체와 구상이 어떤 식으로 국민 「계발」에 도움이 되도록 실현되었는가를 짚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사절단이 출발하기 직전, 베르벡이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는 문서에도 『베이오카이란짓키』 기록에 적절한 표현과 미디어 매체를 언급, 「견문」의 바람직한 형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8 이 저술의 문체는 모름지기 풍미있고 청려(淸麗)함을 요(要)한다. 또한 문장으로 불충분한 부분은 그림과 도표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차례대로 이를 간행하고 그 가격은 매우 정직하게 해서 간신히 출판의 비용을 보충하는 정도로 하여 빈민이라 하여도 이를 사기에 어려움 없어야 하며, 오로지 널리 유포됨을 그 목적으로 해야 한다.(『미국인 베르벡이 내밀히 제출한 문서』1871년).

본 발표에서는 사절단의 최초의 방문지이며 미개로부터 『문명』도시를 급속히 구축하는데 성공한 샌프란시스코 시찰을 중심으로 다소 고찰을 덧붙여 보고자 한다. 미국 서부를 이동하면서 사절단은 현지 재계인과 언론인(신문기자 등)의 시선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증언을 『베이오카이란짓키』와 함께 읽어가는 작업을 통해 『베이오카이란짓키』의 텍스트로서의 성격과 특색 등에 접근해 갈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② 「기록자」들의 시선

시찰 하루하루를 묘사한 제1편은 반년 간에 걸친 미국 체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세한 언동까지도 각지 로컬신문은 취재하여 보도하였고, 그 보도를 대도시 신문이나 월간지가 점차 주목하여 사절단 방문 뉴스는 전국에 제공되어졌다. 그 배경에는 또 한 가지 우연이 작용하였다. 이와쿠라 사절단이 태평양에서 서부(샌프란시스코)에 내항, 대륙을 횡단한 것과는 반대로, 제정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더 2세의 왕자 알렉시스 공작이 거의 동시에 대서양을 건너 방미, 반대 방향에서 철도를 이용하여 중서부 「개척지」를 탐험·시찰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절단 방문 뉴스를 보도한 샌프란시스코 신문은 동서(東西)에서 온 두 「귀족」을 다음과 같이 동시에 소개하고 있다.

※데일리 알타 캘리포니아 1872.1.24 “우리의 국민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두 유명한 외국인, 이와쿠라와 알렉시스는 비록 공식적인 초청에 의한 방문이 아니며 공적인 예우를 받을 만한 권리는 없으나 (이로 인하여 이들은 통상적인 여정에서 만났을 몇몇 관리들의 수고를 덜어주었다) 국민으로서 여겨지고 대우받고 있다. 정부와 관료들은 편협한 법적 제한과 관습적 의무에 얽

매이지 않고 이 저명한 이방인들에게 따뜻한 환영을 베풀었다. 이와쿠라는 태평양 해안에 도착하고, 알렉시스가 아틀랜틱 해안에 도착한 후, 통상적인 축하연 속에서 공적인 표명의 특별한 행사가 행해졌다.

그러나 러시아 왕자가 각지에서 버팔로와 놀며 지극히 「귀족」적인 유흥의 나날을 보냈던 것에 반해 일본 사절단은 미국 및 미국인으로부터 서양 「문명」을 배우는 일에 오로지 전념하고 있었고, 이러한 모습이 당시 보도 미디어에 호의적으로 포착되었음은 어느 신문, 잡지 기사를 펼쳐 보아도 확인되는 바이다. 현지에서 배운 사회, 기술, 과학에 걸친 사항들을 고위직인 이사관(理事官)이든 젊은 서기관이든 항시 한 손에 노트를 들고 필기하고 있었다는 점이 기이하게 비쳐지기도 한 모양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종의 「기록하는 일본인」으로 이미지화되어 미국 내외로 유포되어지고 개국·유신 이후의 일본문화를 표상하는 하나의 집약(集約)으로까지 간주되어진 듯하다.

※ 지난 밤 몇몇 사절단 일원은 캘리포니아 극장에 참석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거리주변을 산책했으며 일부는 클리프하우스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는 일찍 그들의 방으로 돌아가 사절단이 일본으로 귀국할 때까지 출판물 미뤄둔 보고서를 썼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1872.1.18)

※ 서로 다른 부서의 서기들은 각각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들은 흥미를 끌고 그들이 속한 부서와 연관된 관심사는 모두 보고서에 노트해 두었다. 이러한 보고서는 사절단이 외국에 남아있는 동안 기록해야 하고 매달 일본정부로 발송되어졌다. 모든 일간신문에 게재된 기사들 또한 보관되어졌으며, 2월1일 차이나 스티머에 리셉션과 국내에서 사절단의 여정에 대한 상세한 기사가 실렸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1872.1.21)

※ 만약 이 사절단들이 그들이 미국에 대해 얻은 지식만큼 우리들에게 일본에 대한 지식을 남겨준다면 그들만큼이나 우리들 시야 또한 넓어질 것이다. (시카고 트라이분, 1872.2.8)

이러한 미국 신문의 논조는 동시에 세계로 확산되어져, 아시아의 경우, 홍콩

의 활자미디어 중에서도 사절단의 정보수집과 기록 활동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일본 『도쿄일일신문(東京日日新聞)』, 『해외신보(海外新報)』(M6.9.22)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일신문』에서는 『홍콩화자일보(香港華字日報)』를 번역한 『외신(外報)』으로 현지의 일본사절단을 둘러싼 뉴스가 가끔 등장하여 그 시찰 방법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홍콩화자일보에서는 「일본사신이 유럽각국을 돌아다니며 각 나라의 풍토(風土), 인정(人情), 산천(山川), 산물(物産)을 상세히 기록하니 가히 얇은 책이 될 정도이다. 또한 듣자니 그 일을 마치고 나서 7월 5일 「즉, 우리나라 일자로 8월27일」 프랑스에서 배를 타고 홍콩에 이르렀다」라고 한다.

③ 구메 구니타케의 「견문」언설(言說)

타자로부터 받는 시선(視線)의 또 다른 방향은 사절단 스스로의 언동, 혹은 후년 구메 구니타케가 저술한 『베이오카이란짓키』로부터 짐작할 수 있다. 『베이오카이란짓키』가 어떠한 내용인지에 관해서 구메 자신이 서두의 「범례」부분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그 주 내용은 시찰에서 얻은 「목격의 실제(實際)」란 산만하고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며, 따라서 현장감 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기록자도 「착잡」(錯雜:혼재되고 복잡함)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나, 이 글은 일기로서 체재(体裁)를 갖추고 소임을 다하여 목격한 실재를 기록하고 귀로 들은 얇은 지식만으로 꾸미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작장에서 이야기가 막 끝난 후 궁 뜰의 경관이 돌연히 서술되고, 산수(山水)의 경치를 기록할 때 갑작스레 산물무역의 통계를 뒤섞어 산만하고 통일됨이 없음은, 즉 이것이 실록의 체재이기 때문이다. 1편은 서쪽으로의 항해를 그 시작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의깊게 풍물의 차이를 논하고 있으나, 2편, 3편은 공예제작 생산을 상술하고 있으며 4편, 5편에 이르러서는 반복을 생략하고 다른 점을 취하여 서로 보완, 정돈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방문이 생략된 곳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그 나라의 특산물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목면의 제조는 미국의 보스톤,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두 세 번이나 둘러보았기에 글래스고에서는 이를 생략하였으며 유럽에서는 벨기에를 둘러본 후, 프랑스의 알사스, 독일의 베를린, 작센은 다시 보지 않았다.

백동(白銅) 공업은 독일의 특기이나 영국과 프랑스에서 여러 번 관람하였으므로 다시 들르지 않았던 것이다. 때마침 오스트리아의 박람회(會場)의 진열품을 보고 각국의 공업기술의 개략을 열거한 후 이 글의 결말을 지을 수 있었다. 이 글을 보는 이가 스스로 방문을 경험하는 듯 읽어가자면, 이 『착잡』(혼재되고 복잡한 서술)이 오히려 『베이오카이란짓키』의 진실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베이오카이란짓키』범례 중에서)

구메는 『베이오카이란짓키』에서 시간 축에 따라 복잡한 『목적의 실제』를 기록하려고 애쓰고 있다. 복잡한 『실제』를 반영하여 서술하는 순서에 혼란이 생긴다 하더라도 독자는 이 혼란을 오히려 『베이오카이란짓키』의 진실』로서 받아들여 이를 통해 간접체험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착잡』이라 함은 여러가지 요소가 뒤섞여 있는 상태, 당시 Intricacy (『철학자휘(哲學字彙)』)의 번역어로서도 대응되고 있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공적인 간행이 긴요하다고 여겨졌던 해외전문록에서는 레토릭을 경시하고, 사실을 재편성하지 않은 채 재빨리 거의 『초고 그대로』정리하는 것이 중시되었었다. 『베이오카이란짓키』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다른 종류의 일기체 보고서를 보아도 『실제』의 기술을 우선하여 박진감 있는 보고임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메이지4년 육군성판(陸軍省版) 『보불전쟁지략(法普戰爭誌略)』[와타리 로쿠노스케(渡六之助)저술]이라는 보불전쟁(普仏戰爭: Franco-Prussian War)에 관한 현지 기록이 있다. 『이 책은 본디 실제 상황을 보고함을 주 목적으로 하며 문자의 수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설령 내가 몇 차례 원고를 교정, 검열한다 하더라도 겨우 글구의 변경만 있을 뿐 그 미흡함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문구를 고치느라 보고가 늦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초고를 있는 그대로 보고하여 신속함이 상책이니 마침내 이 책자를 감히 조정대신 여러분(在廷諸賢)께 봉납하여 보이길 희망하는 바이다.』(1권 부언)

한편 구메는 서술하는 스타일 뿐만 아니라 시찰일정에 관한 언급이나 시찰지에서의 전문내용, 구미에서의 자연체험 등에 대해서도 『착잡』(교착(交錯), 종착(綜錯), 착란(錯亂), 착락(錯落), 분착(紛錯)) 등의 전문용어(term)을 자주 사용하여, 뒤얽힌 양상을 강조하고 있다. 사절단이 본 공장이나 공공시설 등이 매우 번잡하고 세분화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노동자들의 체계적인 일의 방식에 주목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그들에게 고차원의 문명성을 느끼게 하였는데 「착잡」한 상황이야말로 번성의 상태, 부국에 연결되는 중요한 조건이라 여긴 구메는 서양 공업 국가에 있어 특징적인 「분과분업」을 공간(空間)으로서 묘사하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나레이션의 시간을 정돈하는 축(軸)으로서 「산만하고 통일성 없는」 편년(일기)체를 선택한 것도 구메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으며 또한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착잡」하고 번잡한 풍경은 1편의 미국 이외의 지역, 예를 들어 런던의 우편물 분리 작업을 기술한 아래 기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 무역이 가장 왕성한 나라이므로 우편이 실로 많다. 우체국 앞에서 우체부는 사방에서 우체통의 편지를 모아 자루에 넣어 와서 5초, 7초 사이를 두고 연이어 끊임없이 던지고 있다. 이것을 정리하고 검열하고 무게를 재고 이름을 살펴 배달할 지방을 분류하여 각각 그 주인에게 배달이 되니 멀게는 홍콩, 요코하마에 이르고, 가까이로는 옆 동네에 도착하는 것이다. 큰 봉투, 작은 봉투 잡착(雜錯 : 혼재되고 섞여있음)한 상태로 온다. 화폐를 보내는 것은 따로 창구가 있다. 우체국의 다망함은 이에 비할 데가 없다.(제2편 제25권 「런던기록 하」).

비할 데 없는 다망함과 「착잡」에 대한 마치 두려움과도 비슷한 시선. 이는 당시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의 논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문명개화사상의 하나의 기조를 이루고 있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논조와 구메를 포함한 사절단이 견문한 「실제」의 존재방식을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검증하고, 『실기』에 비친 중층적(重層的)인 계몽언설을 자리매김하고자 한 것이다.

지금 서양제국은 실로 다사(多事)한 세계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명을 발전시키는 요인은 노력하여 인사(人事)를 바쁘게 하고 수요를 번다(繁多)하게 하며 사물의 경중 대소에 관계없이 수없이 이를 채용하면 더욱 정신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다...(『문명론의 개략(文明論之概略) 1권 제2장, 메이지8년』

アメリカ西部の岩倉使節

ロバート・キャンベル(Robert Campbell)

① 岩倉使節の文脈

1869年5月(太陰暦)という年月は、日本でいうと明治維新を経て、新政府が統治の基盤を安定させ、近代国家への模索を本格化する時期に当たる。明治改元(1868年9月)と実質的な遷都をすでに成し遂げ、諸藩体制の終焉と国家統一を内外に示す版籍奉還の一手手前であり(69年6月)、新たな政体を定める廃藩置県(1871年7月)を2年後に控えた射程の上に立っていた。アメリカでいう同じ年月とは、国家統一を賭けて闘い、未曾有の殺戮をもたらした南北戦争の終焉(65年4月、但し太陽暦)から数年経たない内にも、世界に類を見ない経済復興を果し、『金メッキ時代』と呼ばれる70年代の下地を整えるという意味では注目すべき岐路に立っていたと言える。しかし『新生』開国日本をふくむ当時の世界状況から見ると、アメリカにおけるもっとも画期的な出来事とは、この月、西南地方のユタ準州プロモントリー・ポイントという場所で『太平洋鉄道』の線路に最後の枕木が打たれ、新大陸を横断する鉄道が初めて完成・開通するということが挙げられる。旅客が蒸気船と機関車を用いて世界(北半球)一週を効率よく行なうことが可能となり、同時にゴールドラッシュ(48年開始)以来急速に発展したアメリカ西部では大西洋を隔てた欧州と、アメリカ東部とがつながることによって、アジア諸国との貿易ないし人物交流を活発させ、現在いうところの環太平洋文化・経済圏の第一歩を整備した時点であったと言える。

また日本を振り返ってみると、1869年5月には、アメリカ人宣教師、当時開成学校の教師でもあったフルベッキ(Guido Verbeck)という人物が大隈重信に対

して、日本政府が欧米への使節団を派遣すべきことを述べ、あわせてその目的と方法を詳述したノートを書き送っている。当時は時期尚早として黙殺されたが、廃藩置県を経て統一国家が成立する71年に、派遣がふたたび現実味を帯び、岩倉具視を大使に任命し、条約改正の交渉を主目的として派遣に踏み切ることになる。このとき岩倉がフルベッキを呼び出し、以前のノートの復元・再提出を命じ、短期間に日本政府が企画した大がかりな派遣のなかで、重要な指針としてこれを用いたのである。ノートを見ていくと、岩倉使節が条約交渉に止まらず、行程のなかで近代西洋文明を積極的に視察・学習することが強調され、そしてその成果として、帰国後、報告を書き上げて広く自国民に文明の階梯を示す啓蒙として公刊することが、必須の条件として取り上げられている。

「使節のすべての高官、とくに書記に、みずからの見聞のすべてを詳細に記録し、各部門についてできるだけ、多くの情報を筆写ないし印刷物のかたちで入手せしめること。そうすれば彼らの帰国後、政府は必要と思えば、その使節団のすべての成果を、国民の一般的な利益と啓発のために編集、刊行する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フルベッキ「ブリーフ・スケッチ」[もと英文])。

大使随行員として使節に参加した久米邦武が1878年に公刊した『米欧回覧実記』(5冊、太政官記録掛刊行)は、すなわち右にいう「印刷物」そのものであり、近代日本初期の国際的位相を考える際に欠かすことのできない書物の一つとなっている。のみならず、「国民の一般的な利益と啓発のために編集」された啓蒙書でもあった以上、表現と表象の分析対象になることは当然あり得るわけで、その意味で、『実記』の文体と構構がいかにして国民「啓発」に資するものとして実現されたのかを、問うことが重要である。フルベッキが使節団出発の直前に提出したと思われる文書にも、書かれるべき『実記』の表現とメディア媒体に触れ、「見聞」のあり方を次のように規定している。

「第八 此著述ノ文体ハ宜ク風味アリテ清麗ナルヲ要ス。且文章ノ尽サル所ハ画図アリテ之ヲ補フベシ。而テ順次ヲ以テ之ヲ刊行シ、其価ハ極テ廉直ニシテ僅ニ上梓ノ費ヲ補フ位ニシテ、貧民ト雖モ之ヲ購ルニ難カラズ、只流布ノ衆多ナル

ヲ旨トスベシ』(『一米人フルベッキより内々差出候書』(『フルベッキより内々差出候書』、1871年)。

本発表では、使節団にとって最初の訪問先であり、未開から「文明」都市を急速に築き上げることに成功したサンフランシスコ視察を中心に、若干の考察を加えたいと思っている。アメリカ西部を移動する使節団は、現地の財界人と言論人(新聞記者等)の眼差しに常にさらされており、それらの証言を『実記』と合わせて読むことによって、『実記』のテキストとしての性格や特色などに迫ることが可能と考えるからである。

② 「記録者」たちへの眼差し

視察の日々を描いた第一編は、半年間に及ぶアメリカ滞在を中心に構成されている。細かい言動までを、各地のローカル新聞は取材して報道し、その報道を大都市の新聞や月刊誌が次第に注目して、使節来訪のニュースを全国に提供するようになった。その背景に、一つの偶然がある。岩倉使節が太平洋から西部(サンフランシスコ)に来航・大陸横断するのと逆に、帝政ロシア皇帝アレクサンダー二世の王子・アレクシス公爵がほぼ同時に大西洋を渡って訪米、逆方向から鉄道を用いて中西部の「フロンティア」を探検・視察したのがそれである。たとえば使節来港のニュースを報じるサンフランシスコの新聞は、東西2人の「貴族」を重ねて次のように紹介している。

※Daily Alta California 1872/1/24 "Our National Guests"

Two eminent foreigners, Iwakura and Alexis, now in our country, are regarded and treated as National guests, though they came without formal invitation and without a right to any public attention, save from a few officials whom they would have met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movements. But neither the government nor the people are disposed to confine themselves within the narrow limitats of legal or customary obligation, and they have combined to give most hearty welcome to the

distinguished strangers. The arrivals of Iwakura on the Pacific shore and of Alexis on the Atlantic, have been made the occasions of public demonstrations almost in the nature of general rejoicings.(後略)

しかしロシアの王子が各地でバファローと戯れ、きわめて「貴族」的な遊樂の日々を過ごしたらしいことに対し、日本の使節団は、アメリカ及びアメリカ人から西洋「文明」を学ぶことにひたすら打ち込んでおり、その姿が、当時の報道メディアにおいて好意的に捉えられていたことはどの新聞・雑誌記事を繙いても確認できるところである。現地で学んだ社会・技術・科学にわたることがらを、高位の理事官も若手の書記官も、常にノートを片手に筆記していたことは奇異にすら映ったらしい。一種の、「記録する日本人」と言ったイメージとなり、これがアメリカ内外に流布し、開国・維新後の日本文化を表象する際の一つの集約点にまでなっていくようである。

※"Last evening a number of the members of the Embassy attended the California Theater. Others strolled around the streets, and a few visited the Cliff House. The majority of them, however, retired to their rooms early, and wrote up the journals which are being kept for publication on return of the Embassy to Japan."(San Fransisco Chronicle, 1872.1.18).

※"Each of the Secretaries of the different departments keeps journals, in which they note whatever points of interests which attract their attention and is connected with the department to which they belong. These journals are to be kept during the time the Embassy remains in foreign countries and forwarded to the Government in Japan every month. The accounts published in all the daily papers area are also preserved, and on the first of February the China steamer will bear the detailed statements of their reception and movements to their friends at home."(San Francisco Chronicle, 1872.1.21)→Alta1/16に担当記者指名の話あり。

※"If these gentlemen could leave with us as much knowledge

concerning Japan as they will gather here concerning America, ==(then that?) would widen our vision almost as much as their own" (The Chicago Tribune, 1872.2.8)。

米国の新聞論調は、同時に世界を駆けめぐり、たとえばアジアでは香港の活字メディアの中でも使節団の情報収集と記録活動に目を向けていたことを、日本の『東京日日新聞』〜『海外新報』(M6.9.22)等で見とることができる。『日日新聞』では、『香港華字日報』を翻訳した『外報』として、現地の日本使節団をめぐるニュースが時折登場し、次のように視察の方法に触れている。

※『香港華字日報ニ日本使臣欧洲各国ニ使シテ歴ル所国々ノ風土人情山川物産ヲ詳記シテ現ニ簿冊トス又聞其事オハリテカラ七月五日『即我八月二十七日』法国ノ船ニ乗り香港ニ至ル』云々。

③ 久米邦武の『見聞』言説

他者から注がれた視線の方向を、一方使節団自らの言動、あるいは後年久米邦武が著述した『実記』から汲み取ることができる。『実記』が何であるかを、久米自らが冒頭の『例言』で述べているが、その主旨は視察で得た『目撃の実際』は雑駁で体系的でないものがあり、したがって臨場感をもって伝えるためには記録者も『錯雑』を怖れるべきではない、と久米が主張する。

一 此編日記ヲ以テ体裁ヲ定メ、務テ目撃ノ実際ヲ録ス、耳食ノ談ヲ以テ、眉目ヲ粧ハズ、故ニ製作場ヲ談ズル纔《わづか》ニ終リ、宮苑ノ観忽出テ、山水ノ勝ヲ記スルノ際ニ、

突然トシテ物産貿易ノ計ヲ錯《まじ》ユ、雑ニシテ統ナキハ、即是《これ》実録ノ体面ナリ、初編ハ西航ノ始メニテ、注意多ク風物ノ異ヲ采論スルニアリ、二編三編ハ、工芸制産ヲ詳審スルヲ務ム、四編五編ニ至テハ、復ヲ略シ異ヲ択《えら》ミ、弥縫《びほう》周備ニ意アリ、故ニ回覧ヲ略セル所ニモ、亦其国ノ特美ナキニハ非ズ、喩《たとへ》バ木綿ノ製造ハ、米ノ波士敦《ボストン》、英ノ曼職特《マンチュストル》ニテ、再三周覧ヲ経タレバ、哥羅斯哥《グラスゴー》ニテハ略

シテミズ、欧陸ニテハ、白耳義《ベルギウム》ニ一覽ノ後ハ、仏ノ「アルサス」、日耳曼ノ伯林、薩撒《サツキセン》ハ、必《かならずし》モ復《また》至ラズ、白銅ノ工ハ、独逸ノ長技ナルモ、英仏ニテ再三ノ覧觀ヲ経タレバ、又訪ザルガ如シ、幸《さいはひ》ニ末路奥国ノ博覧会ニアフ、因テ会場ノ列品ヲミテ、各国ノ工技ヲ略論列シ、此編ノ結末ヲ振ハスコトヲ得タリ、此編ヲミルモノ、親《みづか》ラ此回歴ヲ試ム意想ヲ以テ、読マバ其錯雜ナル所ニ、反テ実記ノ実ヲ全クセルヲ知ラン、(『米欧回覧実記』例言)。

久米は、『実記』において時間軸に添って複雑な「目撃ノ実際」を記録しようとしてつとめている。複雑な「実際」を反映して、叙述の秩序にも乱れが生じやすく、読者にはこの乱れをむしろ「実記の実」として受け入れ、追体験してほしいとまでいっている。「錯雜」とは様々な要素が入り交じっているさま、当時Intricacy(『哲学字彙』の訳語にも充てられているが、最初に見てきたように、公刊が緊要と考えられた海外見聞録では、レトリックを軽視、事実を再編成せずに速やかにほぼ「草稿のまま」まとめ上げることが重視されていた。『実記』に限らず、同時代の数種の日記体報告書を見ても、「実際」の記述を優先して、迫真の報告であることを強調している。

たとえば、明治四年・陸軍省版『法普戦争誌略』(渡六之助著)という普仏戦争の現地記録がある。「此誌、固(もと)より事情を告(つぐ)るを主とし文字の修飾を要とする者に非ず。仮令(たとひ)余再三校閲するも、僅々字句の間に在て其(その)拙たるは固(もと)より也。然らば章句を改竄して報ずるの遅からむよりは、寧ろ草稿のまゝにて呈するの速かなるに如(しか)ずと、遂に此冊子を取て諸公の奉囑し、敢て在廷諸賢に呈せむ事を乞ふもの也」(卷一附言)。

一方の久米は、叙述のスタイルに限らず、視察行程に触れる際、あるいは視察先での見聞内容、欧米での自然体験などについても、「錯雜」(「交錯」「綜錯」「錯乱」「錯落トシテ」「紛錯」)等のタームを随所に用い、入り組んだ様子を強調している。使節が目にした工場や公共施設などで凄まじい細分化と繁忙さがあり、労働者のシステムティックな働き方に対して注目をはらっている。その状況から、彼らは高次の文明性を感じとっていたが、「錯雜」した状況こそ繁盛の常態、富国にも繋がる重要な条件と考えた久米は、西洋工業諸国家において特徴

的な「分科分業」(次条)を空間として描くことを自覚していたと言える。いきおい、ナレーションの時間を整序する軸として「雑ニシテ統ナキ」編年(日記)体を選び取ったことも、久米にとっては当然の選択で、効果的とも言うことができる。「錯雑」とした繁忙の景色は、初編アメリカ以外の地域でも、たとえばロンドンの郵便物仕分け作業を記述した次の箇所にも、見てとれる。

殊ニ英国ノ如キハ貿易最モ盛ナル国ナレハ、郵便ノ夥多シキ実ニ甚シ、郵便館ノ前、收信丁ハ四方ヨリ郵便箱ノ信書ヲ収メ、袋ニ套(おおい)シテ来リ、擲チ入ルハモノ、五秒七秒時ヲ隔テハ、続絶ヘルコトナシ、是ヲ整理シ、之ヲ査驗シ、輕重ヲ衡リ、記名ヲ闔シ、配達ノ地方ヲ分チ、以テ各其主名ニ配リ、遠キハ香港横浜ニ至ルアリ、近キハ数町ノ内ニ達スルアリ、大封小封、雜錯シテ来ル、貨幣ヲ送ルハ別ニ懇囑ノロアリ、局内ノ忙シキコト、之ヲ比スルニ物ナシ(第二編第二十五卷「倫敦府ノ記下」)。

無比の忙しなさ「錯雑」さへの、畏怖にも似た眼差し。福沢諭吉の当時の論調にも見てとれるものであり、文明開化思想の一つの基調をなしていた。発表では、この論調と、久米たちが見聞した「実際」の在りようを具体例を通して検証し、『実記』に映る重層的な啓蒙言説を位置づけてみたいと考えている。

今ノ西洋諸国ノ如キハ正ニ是レ多事ノ世界ト云フ可キモノナリ。故ニ文明ヲ進ルノ要ハ勉メテ人事ヲ忙ハシクシテ需用ヲ繁多ナラシメ事物ノ輕重大小ヲ問ハズ多々益コレヲ採用シテ益精神ノ働ヲ活潑ナラシムルニ在リ…(『文明論之概略』卷一第二章、明治八年)